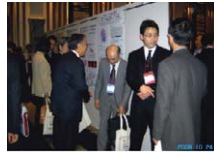


풍요로운 재일동포사회 만드는 '재일과협'



글 | 현광남 _ 재일과협회장,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교수 gen@waseda.jp

재일 한국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민족교육을 들 수 있다. 재일 한국인 사회가 1세 중심적인 사회에서 2, 3세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의식면에서도 1세들의 조국 지향적인 의식에서 2, 3세의 현지 정주 의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재일 한국인 사회의 민족교육의 현실은 정체되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사회로의 동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일본이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민단을 중심으로 영주권자 지방자치 참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방해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찾아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본 사회에서 재일 한국인으로 떳떳이 자신의 주체를 밝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민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관해 현실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양한 사업 통해 한국 과학기술진흥에 공헌

1983년 10월 한국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일본의 각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일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일과협)를 설립했다. 당초 재일 유학생이 기폭제가 된 면도 있지만, 재일 한국인과 유학생이 양축이 되어 한

국과 연대를 밀접히 해오고 있다.

재일과협의 회원들은 일본 사회와 한국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45년부터 1982년까지 귀국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 한국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에서는 북쪽으로 홋카이도대학, 서쪽으로 나가사키종합과학대학, 남쪽으로 미야자키·가고시마대학에서 이공계 교수로 활약하고 있으나, 전체 실태 파악이 안 된 것은 유감이지만 민간 회사에서 일본 이름으로 활약하는 회원도 수천 명은 될 것이다. 본국뿐만 아니라 재일 동포의 횡적 연대를 긴밀히 하는 것은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재일과협은 1984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에 계속 참가해 전 세계에 주재하는 과학자와 글로벌 연대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세계 각국의 젊은 민족과학도들이 모여 개최되는 YGF(Young Generation Forum)에도 젊은 민족과학도들을 모집하여 참가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YGF 추천자는 39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민족과 재일 한국인을 짝지어고 나아가는 역군이기에 때문에 기대가 크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해외동포고급두뇌활용 프로그램에 68명 이상을 추천했고, 재일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 대학 교수, 연구소 등에서도 우수한 연구자들을 추천하고 있다.

재일과협은 한·일 과학기술자 간의 교류 및 유대, 친목을 기하고 한국과의 밀접한 협력 아래 풍요로운 재일동포 사회의 실현과 한국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회원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학사 이상의 의·치학계를 포함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재일동포사회에서 과학기술 두뇌가 처음으로 하나로 뭉쳐진 것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을 통해서 조국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자주적으로 설립된 신한학술연구회(1952년 11월)이다. 그 후 조국에 귀국한 회원들에 의해서 신한동우회(1956년 11월)가 한국 내에서 설립됐다. 재일과학협이 설립함으로써 신한학술연구회에서 자연과학 분야가 합류하게 되었다.

재일과학협은 1984년 12월,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의 특별회원으로 승인을 받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중국, 구 소비에트연방(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오스트리아 등 해외 동포 과학 기술자 단체와도 연계를 맺고 있다. 그 뒤 1994년에는 민단 중앙본부의 산하 단체로서 승인을 얻고 재일동포사회의 발전에 직접 공헌하는 단체로서 성장하였다.

풍요로운 재일동포사회 위해 민단 사업에도 참여

재일과학협은 설립 당시부터 재일과학협의 활동 기반으로서, 재일동포사회의 과학기술 진흥의 심벌로서, 재일동포와 한국 간의 과학기술의 교차점으로서, 그리고 재일과학협의 활동을 지탱하는 재원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회관을 소유한다는 목표를 지향해 왔다. 설립 당시의 회장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결과 한국 정부로부터 회관 구입 자금이 원조되었다. 재일과학협은 1998년 고기수 회장 때에 현재의 협회 소재지(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초)에 5층 건물을 구입했다.

재일과학협은 회원인 과학기술자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재일동포사회나 한국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1984년 이래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전문적인 분과활동을 지원하며 학술논문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1992년부터 회원이 조사한 일본의 첨단기술분야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서 한국 내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 1984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산업 시찰과 견학을 시작했다.

풍요로운 재일동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일과학협은 민단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민족학교에서 세미나와 첨단기술 전시회를 열었고, 산하 단체와의 공동 주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21세기위원회'의 IT분회는 재일과학협의 주도로 진척되고 있고, 청년상공회와 합동 패널 토론회를 개최해서 풍요로운 동포사회 구축에 관한 토론도 해왔다. 과학기술의 계몽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술

대회나 산업전시회를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또 재일조선인 과학기술협회와 전문가 교류를 진척시키고 있다.

재일과학협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이나 산업 발전에 직접 공헌하고 있다. 특히 과총이 주최하는 각종 사업에는 우수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일과학협의 회원은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부터 학술원상, 과학기술상, 과학기술 진흥상, 발명상 등을 수여 받는 등 전문가로서의 업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창립 25주년 맞아 'AKC 2008' 국제회의 개최

재일과학협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총 주최로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총회가 학사회관(도쿄 진보초)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다. 더불어 아시아-한국 첨단과학기술 국제회의(AKC 2008)도 개최했으며, 회장단을 비롯한 사무국장장과 편집위원회 공동 작업으로 재일과학협의 25주년의 연혁과 활동의 총괄적인 경과를 담은 '과학 25년의 걸음'을 발간하였다.

AKC 국제회의는 미국·캐나다에서 개최되는 UKC 회의, 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하고 있는 EKC 회의의 뒤를 이어 재일과학협 창립 이래 가장 많은 강연자가 아시아 지역에서 참가하여 연구 발표를 하였고, 첨단과학기술의 각 분야에서 학술을 교류하는 형태로, 재일과학협의 주최로 처음으로 시도된 국제회의이다. AKC 2008 국제회의에서는 5분야의 토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수는 43건(일본 : 21, 한국 : 14, 중국 : 6, 터키 : 1, 방글라데시 : 1)이었다. 일본 국내의 젊은 연구자에 의한 포스터 연구발표는 각 연구 분과회와 각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했으며 발표수는 49건이었다. 한편, 2009 AKC는 재중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2009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8. 28~29 : 학술발표, 30 : 소셜 프로그램) 중국 연길시에서 개최한다.

재일과학협은 재일 동포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의 구심체로서 고급두뇌의 발굴과 젊은 세대의 육성, 회원 상호의 교류를 통해서 풍요로운 재일동포사회 구축과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계획이다. **ST**



글쓴이는 고가쿠인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와 교토대학교에서 정보과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네브라스카대학교 링컨캠퍼스 방문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방문교수 등을 지냈다. 포스텍 방문교수 등을 지냈다.